

한국인 하루 모바일앱 사용시간 200분...전 세계 1위

게임 카테고리가 25%로 가장 높게 나타나

한국 모바일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.

모바일 앱 시장조사기관 앱애니가 10일 발표한 ‘소비자 앱 사용량 집중 탐구 보고서’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은 약 200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 세계 1위다. 브라질, 멕시코,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.

특히, 한국 이용자의 앱 이용 시간 중 25%가 게임 카테고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브라질과 멕시코 등의 이용자는 소셜과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에서 50%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지난달 발표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는데,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,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1인당 사용시간이 가장 긴 앱 카테고리는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. 아울러 스마트폰 게임 이용자는 하루에 평균 46분, 한 달 23시간 47분을 게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, 분석 대상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설치된 앱 중 30-50%에 해당하는 평균 30개 이상의 모바일 앱을 매달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밖에도 조사 대상 국가의 사용자들은 하루 최소 9개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iOS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이용자보다 하루 평균 약간 더 많은 모바일 앱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. iOS의 사파리(Safari)와 안드로이드의 구글(Google) 등 수 많은 선택제 앱의 효과로 유틸리티와 도구 카테고리의 앱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, 소셜 네트워킹(iOS), 커뮤니케이션(안드로이드), 소셜(안드로이드) 카테고리가 그 뒤를 이었다.

평균적으로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iOS 이용자보다 30% 더 많은 게임 앱을 사용하지만 iOS 이용자의 평균 수익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보다 높았다. 테이팅과 생산성 앱은 하루 평균 약 4회 실행되고, 금융과 생산성 앱은 한 번 실행될 때마다 1분 미만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앱애니 한국 지사장은 “2016년의 모바일 앱 사용 시간은 1초 시간에 이르렀는데 올해 역시 같은 기초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”며 “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모바일 앱 생존 전략의 키 포인트”라고 강조했다. **KAA**

유재형 yoojh1999@kaa.or.kr

하루 평균 앱 이용시간(분) Android Phone

